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Conflicts, Academic Stress Coping Ability, and Social Support on Adaptations to College Life among Male Nursing Students

전해옥*, 염은이**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청운대학교 간호학과**

Hae-Ok Jeon(beaupil@cju.ac.kr)*, Eun-Yi Yeom(eyyeom@chungwoon.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소재의 4년제 간호학과 6곳에 재학 중인 남학생 225명을 대상으로, 2014년 4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로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학업스트레스 대처($\beta=0.33$, $p<.001$)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수로,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약 22%설명하였다. 또한 전공만족도, 사회적지지, 성역할 갈등, 동아리 활동 순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전체 변수는 대학생활 적응에 대해 약 3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F=23.50$, $p<.001$). 그러므로 남자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대처능력 강화와 성역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수, 선후배로 구성된 사회적 지지망 구축이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중심어 : | 성정체성 | 심리적 적응 | 심리적 스트레스 | 사회적 지지 | 학생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effects of gender role conflicts, academic stress coping ability, and social support on adaptations to college life among male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 reported structured questionnaire form 225 male nursing students using convenient sampling methods from April 1 to June 4, 2014. Stepwise regression showed that academic stress coping ability had the greatest effect on adaptations to college life($\beta=0.33$, $p<.001$), followed by major satisfaction, social support, gender role conflicts and club activity. These variables together explained 33% of the adaptations to college life in male nursing students($F=23.50$, $p<.001$). Therefore, programs for resolving gender role conflicts and reinforcing academic stress coping ability should be developed. And social support network which consist of professors and the senior-junior nursing students will help to improve adaptability to college life in male nursing students.

■ keyword : | Gender-identity | Psychological-adaptation | Psychological-stress | Social-support | Students |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3년 대한간호협회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는 662명(1.8%)에 불과하던 남자 간호대학생의 수가 2011년에는 7,968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학년으로 갈수록 남자 간호대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남자 간호대학생의 이러한 증가 추세는 간호직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취업에 대한 확신, 직업의 안정성과 높은 보수, 남성의 희소성으로 인한 직업적 전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 등에 따른 것이다[2][3]. 그러나 간호학을 선택한 남학생들은 여학생 집단 내에서 이질감과 고립감,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4][5], 간호사의 여성성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남자대학생이 여성지배적인 진로를 선택하여, 그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남성으로서의 성역할에 대한 정체성에 도전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7]. 정체체성과 관련된 심리적 갈등을 의미하는 성역할 갈등이란 내면화된 남성 성역할로 인해 자신 혹은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8]. 남자 간호대학생은 간호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남자로서 할 일이 못 된다는 편견으로 반대에 부딪히며, 입학 후 이와 같은 이유로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어 곤혹스러움을 경험한다[9][10]. 뿐만 아니라, 남자 간호대학생은 여학생 집단 속에서의 소외감과 불편감을 극복하기 위해 점차 여성 문화에 맞추어가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여성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0]. 즉, 남자 간호대학생은 여성지배적 사회에서 성역할 정체성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며, 이로 인한 갈등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준다[7, 9, 10]. 또한 이는 향후 남자간호사의 실무 부적응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간호학과 대학생은 전문적 의학·간호학적 전공지식

과 임상실습이 병행되는 교과과정으로 인해 타과의 대학생에 비해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12]. 특히, 남자 간호대학생은 여성 중심의 간호 교육 환경과 실습 분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13],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부분이 한국의 교육환경은 남자를 간호사로 학습시키는데 필요한 자원구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남자 간호대학생은 입학 후 간호학전공 공부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게 되며[14], 군 입대로 인한 학업의 단절과 여학생들과의 경쟁적인 분위기로 인해 학업부담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9], 학업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은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안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15],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으면 자신감과 학습동기의 감소, 학업성적 저하 등과 관련하여 학교생활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16], 효율적인 대처방식을 통한 학업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극복과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문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적응력 향상과 정신적 안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18]. 간호대학생에게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 적응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19][20], 특히 소수의 남자 간호대학생에게 외부자원으로부터의 물리적, 정서적 지지는 학과적응의 주요한 요인으로 규명되고 있다[4].

남자 간호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까지 수행된 남자 간호대학생에 관한 연구는 소수의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그들의 경험을 파악하는 질적 연구가 있었으며, 간호학과 대학생으로서 여성주류 사회속의 생활체험[10], 학습경험[3][9], 정체체감과 전공만족[21], 남자간호사의 이미지와 직무 인식[14] 등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선행연구는 남자간호학생이 경험하는 어려움, 성적역할 갈등과 관련된 실태 및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였고, 본 연구에서처럼 남자 간호대학생의 적응의 장애요인인 성역

할 갈등과 주요한 적응전략인 학업스트레스 대처 및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두어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 적응정도를 조사하고, 이들 변수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근거로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 및 미래의 남자간호사로서의 성장에 도움이 될 프로그램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가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소재의 4년제 간호학과 6곳에 재학 중인 남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Linear multiple regression을 기준으로 G*power program[22]에 의해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medium)로 예측변수 6개를 포함하였을 때, 검정력 .95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표본 수는 146명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인 225명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연구도구

3.1 성역할 갈등

성역할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O'Neil 등[8]이 개발한 Gender Role Conflict Scale(GRCS)을 김지현, 황매향과 유정미[23]가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Korean Gender Role Conflict Scale(K-GRCS)을 사용하였다. 총 37개 문항으로 성공·권력·경쟁, 정서표현 및 애정행동의 억제, 일과 가족관계 간의 갈등에 대한 내용으

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까지의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는 37-22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갈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GRCS의 Cronbach's α 는 .85,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3.2 학업스트레스 대처

학업스트레스 대처를 측정하기 위해, 김정희[24]가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대처 정도 및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5 문항으로 하위 영역으로는 과제에 집중하기, 사회적 지지의 추구, 타협, 긍정화, 기분전환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는 35-1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별 학업스트레스 대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정희[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1~.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64~.92였다.

3.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2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를 문재영[26]이 수정·보완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부모의 지지, 교수의 지지, 친구의 지지의 3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는 12-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재영[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1~.87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5~.91이었다.

3.4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Baker와 Siryk[27]이 개발한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SACQ)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총 25문항 5점 척도로 수정·보완한 이윤정[28]의 대학생활 적응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5개 문항으로 학문적 적응(5, 7, 9, 13, 25), 사회적 적응(2, 11, 14, 18, 23), 정서적

적응(3, 8, 17, 22, 24), 신체적 적응(4, 10, 12, 16, 19), 대학에 대한 애착(1, 6, 15, 20, 21)의 5개의 하위영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는 25-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윤정의 연구[28]에서 Cronbach's α 는 .85,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자가보고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4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였으며, 수집된 총 234부 중 분석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문내용이 미흡한 9부를 제외한 22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자료수집 전, 서면으로 작성된 연구 설명서에 연구의 목적, 설문 소요시간, 설문의 익명성 보장, 설문 중 원치 않을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에 대해 공지되었다. 이에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하는 대상자에 한해 서면으로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자가 기입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종료 후 익명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설문을 완성한 모든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여 답례를 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 관련 특성,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을 파악하기 위해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범위를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 관련 특성에 따른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방법,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확인하였다.
- 3)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 전공 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 남자 간호대학생의 평균연령은 21.99세로, 1학년이 38.7%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없는 경우가 55.1%를 차지하였다. 거주유형은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35.6%로 가장 많았으며, 병역유무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60.9%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48.0%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주관적 경제 상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7.3%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55.6%가 간호학과 전공에 대해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간호학과에 진학한 동기는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서' 36.3%, '높은 취업률 때문에' 33.0%, '가족의 권유' 11.8%를 차지하였으며, 기타의 의견으로는 고교성적에 의해 결정, 선생님, 선배, 친구의 권유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총 8.98%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64.0%가 '전공수업의 어려움'으로 고충을 호소하였고, '여학우와의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16.9%로 나타났다[표 1].

2.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점수는 평균119.49점(SD=22.51)이었으며, 학업스트레스 대처는 평균 123.16점(SD=15.12)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 다른 문항수

의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평균평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남자간호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대처방법은 타협, 기본 전환, 사회적 지지의 추구, 긍정화, 과제에 집중하기 순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평균 46.56점(SD=6.61)이었으며, 부모의 지지, 친구의 지지, 교수의 지지 순으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는 평균 85.87점(SD=13.06)이었으며, 대학에 대한 애착, 정서적 적응, 사회적 적응, 신체적 적응, 학문적 적응 순으로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전공 관련 특성 (N=225)

특성/범주	M±SD/n(%)
연령(세)(범위: 18-31)	21.99±2.39
학년	
1학년	87(38.7)
2학년	75(33.3)
3학년	37(16.4)
4학년	26(11.6)
종교	
유	101(44.9)
무	124(55.1)
거주유형	
부모와 동거	80(35.6)
자취	67(29.8)
하숙, 기숙사 등	78(34.7)
병역	
군필	82(36.4)
미필	137(60.9)
면제	6(2.7)
동아리 활동	
유	108(48.0)
무	117(52.0)
주관적 경제상태	
빈곤	45(20.0)
보통	129(57.3)
충분	51(22.7)
전공만족도	
매우 불만족	0(0.0)
불만족	11(4.9)
보통	58(25.8)
만족	125(55.6)
매우만족	31(13.8)
진학동기(복수응답)	
적성과 흥미	89(36.3)
높은 취업률	81(33.0)
가족의 권유	29(11.8)
전문직이라는 점	24(9.80)
기타	22(8.98)
간호학과에서의 어려움 (n=222)	
전공수업의 어려움	144(64.0)
여학우와의 관계	38(16.9)
주위시선	12(5.3)
기타	28(12.4)

표 2.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 (N=225)

특성/범주	범위	M±SD/n(%)
성역할 갈등	37-222	119.49±22.51
학업스트레스 대처	35-175	123.16±15.12
학업스트레스 대처*	1-5	3.52±0.43
과제에 집중하기*	1-5	3.52±0.57
사회적 지지의 추구*	1-5	3.83±0.71
타협*	1-5	3.86±0.56
긍정화*	1-5	3.82±0.63
기본전환*	1-5	3.86±0.91
사회적 지지	12-60	46.56±6.61
부모의 지지	4-20	17.01±2.85
교수의 지지	4-20	14.27±2.76
친구의 지지	4-20	15.28±2.85
대학생활 적응	25-125	85.87±13.06
학문적 적응	5-25	15.46±2.32
사회적 적응	5-25	17.90±3.14
정서적 적응	5-25	18.04±4.02
신체적 적응	5-25	16.73±3.34
대학에 대한 애착	5-25	18.23±3.51

*평균평점으로 환산

3. 대상자의 일반적·전공 관련 특성에 따른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전공 관련 특성에 따라 성역할 갈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 대처에 있어서는 학년(F=8.61, $p<.001$), 종교 유무($t=2.29, p=.023$), 병역이행 유무($t=1.99, p=.048$), 전공만족도(F=9.49,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주관적 경제상태(F=4.92, $p=.008$)와 전공만족도(F=10.28,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서, 학년(F=5.08, $p=.007$), 동아리 활동($t=2.19, p=.029$), 전공만족도(F=31.75,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

4.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남자 간호대학생은 성역할 갈등이 낮을수록($r=-.27, p<.001$), 학업스트레스 대처($r=.47, p<.001$)와 사회적 지지($r=.45, p<.001$)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갈등 수준이 낮을수록($r=-.28, p<.001$), 학업스트레스 대처 수준이 높을수록

($r=.60, p<.001$)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스 대처 수준($r=-.23, p<.0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되었다. 성역할 갈등 수준이 낮을수록, 학업스트레스 [표 4].

표 3. 대상자의 일반적·전공 관련 특성에 따른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N=225)

특성/범주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 적응	
	M±SD	t/F/r (p)	M±SD	t/F/r (p)	M±SD	t/F/r (p)	M±SD	t/F/r (p)
연령 (세)		-.08 (.226)		.08 (.217)		.06 (.390)		-.05 (.465)
학년*								
1학년 ^a	118.24±23.04		123.21±12.92	8.61 (<.001)	46.34±5.80	1.81 (.166)	89.25±12.90	5.08 (.007)
2학년 ^b	123.79±24.14	2.26 (.107)	118.40±14.61		45.75±6.95		83.19±11.58	
3, 4학년 ^c	116.03±18.98		128.78±16.74	b(c)	47.84±7.13		84.40±14.09	a>b
종교								
유	119.26±22.51	-0.14 (.889)	125.70±16.21	2.29 (.023)	46.48±6.81	-0.18 (.856)	86.55±13.68	0.71 (.480)
무	119.68±22.60		121.10±13.90		46.64±6.47		85.31±12.56	
거주유형								
부모와 동거	120.66±20.29		121.56±15.41		45.25±6.73		85.90±14.03	
자취	114.06±20.82	2.98 (.053)	126.88±15.63	2.93 (.055)	47.39±7.07	2.50 (.084)	84.67±14.06	0.51 (.601)
하숙, 기숙사 등	122.94±25.34		121.62±13.97		47.21±5.92		86.87±11.07	
병역								
군필	116.79±20.84	-1.36 (.176)	125.79±16.75	1.99 (.048)	47.54±6.26	1.68 (.095)	86.65±13.54	0.67 (.501)
미필 & 면제	121.04±23.34		121.66±13.94		46.01±6.78		85.43±12.80	
동아리 활동								
유	119.27±23.26	-0.14 (.888)	123.55±13.53	0.37 (.715)	46.71±6.48	0.32 (.747)	87.82±11.30	2.19 (.029)
무	119.70±21.89		122.81±16.51		46.43±6.76		84.07±14.31	
주관적 경제상태*								
빈곤 ^a	119.91±18.89		120.42±18.25		44.60±7.85	4.92 (.008)	82.71±14.19	
보통 ^b	120.28±24.56	0.36 (.699)	122.71±14.81	2.24 (.109)	46.40±6.09		86.50±13.12	1.69 (.187)
충분 ^c	117.16±20.21		126.73±12.21		48.73±6.18	a(c)	87.06±11.63	
전공만족도								
불만족 ^a	124.50±18.41		124.27±16.14		44.00±9.73		71.27±13.32	31.75 (<.001)
보통 ^b	123.66±21.82	2.43 (.067)	116.40±13.24	9.49 (<.001)	43.60±6.45	10.28 (<.001)	77.09±11.15	a(b, <.001)
만족 ^c	119.32±23.00		123.96±14.76	b(c, b(d, c(d	47.09±5.91	a(d, b(c, b(d	88.47±10.35	a(c, a(d, b(c
매우만족 ^d	110.77±21.29		132.23±14.49		50.90±6.61		97.00±12.31	

*Scheffe test

표 4.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N=225)

변수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
	r (p)	r (p)	r (p)
학업스트레스 대처	-.23(<.001)		
사회적 지지	-.28(<.001)	.60(<.001)	
대학생활 적응	-.27(<.001)	.47(<.001)	.45(<.001)

표 5.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N=225)

변수	Standardized β	SE	t(p)	R2change	F ²	Adjusted F ²	F(p)
학업스트레스 대처	0.33	0.06	4.77(<.001)	.224	.224	.334	23.50 (<.001)
전공 만족도(불만족)*	-0.23	3.34	-4.14(<.001)	.069	.293		
사회적 지지	0.19	0.14	2.74(.007)	.030	.323		
성역할 갈등	-0.13	0.03	-2.21(.028)	.015	.337		
동아리 활동(무)*	-0.11	1.43	-1.99(.048)	.012	.349		

Dummy coded.

5.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전공 관련 특성 중 대학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변수인 학년, 동아리 활동 유무, 전공만족도를 포함하여, 주요변수인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대학생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명목형 변수인 학년, 동아리 활동 유무, 전공만족도는 Dummy 변수로 전환하여 분석한 결과, 학업스트레스 대처($\beta=0.33, p<.001$)가 가장 강력한 영향변수로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약 22%설명하였다. 또한 전공만족도, 사회적지지, 성역할 갈등, 동아리 활동 유무 순으로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전체변수의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의 설명력은 약 33%로 나타났다($F=23.50, p<.001$). 분석 시 학년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IV. 논의

남자 간호대학생은 여성중심의 간호학과 학습 환경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심리적인 갈등을 경험하며 학과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수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남자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성역할 갈등은 평균평점 3.23점으로 중간정도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간호사를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이경주와 김미영[29]의 연구에서의 3.13점과는 비슷한 수준이며,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이수연, 김인순과 김지현[30]의 연구에서의 성역할 갈등 점수인 3.57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김지현, 황매향과 유정이[7]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지배적인 학과를 선택한 남학생에 비해 여성지배적인 학과를 선택한 남학생의 성역할 갈등 수준이 더 낮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일반남성에

비해 연구 대상자들의 성역할 갈등 수준이 낮은 것은 여성지배적인 학과 선택 시 감당해야할 성역할 갈등에 대한 고민과 충분한 심사숙고의 과정이 선행되어 직면하는 성역할 갈등이 일반인에 비해 더 낮았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McMillian, Morgan과 Ament[31]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성인의 경우 간호사가 여성의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간호사를 선택한 남성들은 여성스럽고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Chen 등[32]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 일부환자들은 남자간호사로부터 제공되는 간호를 거부하며, 동료 의료인조차도 남자간호사를 차별대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남자간호사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성역할 갈등과 직무만족도 저하를 경험하며, 이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11], 남자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간호사의 여성성에 대한 고정관념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남자 간호학생 스스로 인식을 개선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및 교수 차원에서의 직접적인 사회적 지지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학 영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증진하고 간호사에 대한 전문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학교 내 교육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대처는 평균 평점 3.52점으로 중간이상의 대처수준을 나타냈으며, '타협'과 '기분전환'이 각각 3.86점으로 두 대처방식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김건희[33]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확인,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한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남자 간호대학생은 힘겹게 여겨지는 교과과정과 임상실습의 어려움을 개인의 노력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이를 수동적으로 감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은아와 장금성[34]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이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거나, 주변에서 대처 자원을 구하려는 행동을 하는 것은 개인 내적자원을 증진시켜 학교생활의 적응수준을 높여준다

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남자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학업 스트레스를 개인의 내적문제로 간주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지 추구의 대처방식을 통해 환경적응력과 통제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학업스트레스 대처는 저학년일 경우, 병역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 간호대학생은 군입대와 관련하여 입대시기에 대해 갈등하고, 학업의 연속성 단절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기도 하며[9], 힘든 상황으로부터 탈출구를 찾기 위해 군입대를 선택하기도 한다[4]는 연구결과를 반영한다. 또한, 이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경우 군대를 다녀온 후에 학교적응의 유연성과 융통성이 향상된다고 보고한 이정섭 등[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남학생에게 있어 군대는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건으로 이에 따른 남자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방법에 관심을 갖고,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집단을 선별하여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지를 해주어야 한다. 특히, 군대 관련하여 발달적 위기를 함께 공유하는 남자 간호대학생 선배 및 학내 동아리 모임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과 학내 지원 대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적 지지는 평균평점 3.88점으로 중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경완, 문인오와 박숙경[20]의 연구에서 보고한 간호대학생의 3.78점과 비슷한 수치이며, 간호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정효주와 정향인[35]의 연구에서 보고한 3.80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중 부모의 지지가 가장 높았고, 친구의 지지, 교수의 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에 교수의 역할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간호학과 교수도 대부분 여성이지만, 남자 간호대학생의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서미, 최보영과 조한익[36]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사회적 지지체계를 지각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이 많고 심리적 안녕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낮은 학생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도 낮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전공 만족도가 낮은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초기부터 학우관계에 대해 세심히 관찰하고 적절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권장함과 동시에 최근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수의 정서적 지지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은 평균평점 3.43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경완 등[20]의 2.92점, 간호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정효주와 정향인[35]의 2.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3][37]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대학생활 적응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특성상 진로 및 취업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남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38]와 연관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본 연구대상자들은 대학에 대한 애착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학문적 적응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곽윤경[1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나, 최바울[39]의 연구에서 일반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서는 학문적 적응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윤미선[14]의 연구에서 남자 간호대학생은 입학 후 전공 공부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한다는 결과와 본 연구에서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가장 힘든 점으로 대상자의 64.0%가 '전공수업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결과와 연관 지어 파악해 볼 때, 전공공부에 대한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이를 위해 간호학 교육과정 및 학습 환경에서 어떤 구체적 요인들이 남자 간호대학생의 학업 적응과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전공 관련 특성 중, 학년, 동아리 활동 유무, 전공만족도에 따라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1학년이 대학생활을 적응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학년이 되면서 대학생활 적응수준이 높아진 선행연구[20]와 상이하였다. 이는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간호학과는 대부분

의 고등학생이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이며 신입생의 경우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한 경우 그에 따른 만족감과 자부심이 높아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해석[33]과 유사한 맥락의 결과이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심리적 문제를 해소시켜주며 대인관계의 폭을 넓혀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학교차원의 환경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선호하는 동아리 및 그 효용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실적이면서 효과성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간호대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높은 취업률과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간호학과를 선택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37],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때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한다[40]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적절한 중재가 없을 경우 의욕상실, 학업 성취도 저하, 급기야는 학업 포기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전공만족도가 낮은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적인 코칭과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 대처,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 성역할 갈등, 동아리 활동 유무 순으로 남자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는 전체 변량의 약 3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스트레스 대처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약 22%를 설명함으로써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학년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학교생활 적응을 설명하는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박복남, 박종선과 이정란[41]의 연구와 3-4학년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요인이라고 보고한 김은아와 장금성[34]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남자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하여 성역할 갈등에 대한 고민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교수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가 요구된다. 특히 학업 스트레스 대처에 취약한 집단을 조기 선별하여, 남자 간호대학생 선배 및 학내 동아리 모임을 통한 네트워크의 구축과 학과 내 지원 대책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이 남자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 및 이들 변수가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학업스트레스 대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수로 파악되었으며, 전공만족도, 사회적지지, 성역할 갈등, 동아리 활동 순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업스트레스 대처 능력 강화 및 성역할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학내 관심과 교수, 선배배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지지망 구축이 남자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남자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간호사의 여성성에 대한 고정 관념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남자 간호학생 스스로 인식을 개선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간호학의 영역에 대한 이해 및 간호학 교육 과정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전문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학교 및 교수 차원에서 직접적인 사회적 지지 제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추후연구에서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탐색을 통해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학업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내 외적 요인을 평가하여 남자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과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중재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남자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서 학업스트레스를 평가하고 다양한 환경적, 상황적 요인과 함께 학업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관련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대한간호협회, *남자 국시합격자 반세기만에 1천 명 돌파*, 2014.
- [2] R. J. Meadus and J. C. Twomey, "Men in nursing: Making the right choice," *Canadian Nurse*, Vol.103, No.2, pp.13-16, 2007.
- [3] R. J. Meadus and J. C. Twomey, "Men student nurses: The nursing education experience," *Nursing Forum*, Vol.46, No.4, pp.269-279, 2011.
- [4] 이정섭, 김남정, 두현정, 안지연, 이윤경, "남자 간호대학생의 학과 적응 경험", *정신간호학회지*, 제14권, 제2호, pp.159-169, 2005.
- [5] A. Stott, "Exploring factors affecting attrition of male students from an undergraduate nursing course: A qualitative study," *Nurse Education Today*, Vol.27, No.4, pp.325-332, 2007.
- [6] A. Stott, "Issues in the socialization process of the male student nurse: Implications for retention in undergraduate nursing courses," *Nurse Education Today*, Vol.24, No.2, pp.91-97, 2004.
- [7] 김지현, 황매향, 유정미, "남자지배 학과 선택 남학생과 여성지배 학과 선택 남학생의 성역할, 성역할갈등, 진로미결정과 진로정체감", *청소년상담연구*, 제12권, 제1호, pp.132-142, 2004.
- [8] J. M. O'Neil, B. J. Helms, R. K. Gable, L. David, and L. S. Wrightsman, "Gender-role conflict scale: College men's fear of femininity," *Sex Roles*, Vol.14, pp.335-350, 1986.
- [9] 이도영, 백성희, 최준경, "남자간호대학생의 학업경험", *전인간강과학회지*, 제3권, 제1호, pp.25-36, 2013.
- [10] 최선주, "여성주류 사회 속의 남자간호대학생의 생활 체험", *질적연구*, 제4권, 제1호, pp.52-62, 2003.
- [11] J. H. Lou, R. H. Li, H. Y. Yu, and S. H. Chen,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job adjustment and service attitude amongst male nurse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Clinical Nursing*, Vol.20, pp.864-872, 2011.
- [12] 최지혜, 박미정,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7호, pp.339-349,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7.339>
- [13] C. E. O' Lynn, "Gender-based barriers for male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programs: Prevalence and perceived importa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43, No.5, pp.229-236, 2004.
- [14] 윤미선, "남자간호대학생의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직무 인식", *전인간강과학회지*, 제2권, 제2호, pp.95-106, 2012.
- [15] 신현숙, 구분용,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적응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제9권, 제1호, pp.189-225, 2001.
- [16] L. Magnussen and M. J. Amundso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 experience," *Nursing and Health Sciences*, Vol.5, No.4, pp.261-267, 2003.
- [17]곽윤경, "간호대학생의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5호, pp.2178-2186, 2013.
- [18] J. Hefner and D. Eisenberg,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among college students,"

-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79, No.4, pp.491-499, 2009.
- [19] B. Montes-Berges and J. M. Augusto,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emotional intelligence, coping,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14, No.2, pp.163-171, 2007.
- [20] 이경완, 문인오, 박숙경,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제14권, 제2호, pp.15-27, 2013.
- [21] 이동재,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성격체감, 성고정관념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22]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nd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39, pp.175-191, 2007.
- [23] 김지현, 황매향, 유정미, "한국어 성역할 갈등 척도 (Korean Gender Role Conflict Scale: K-GRCS)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제4권, 제3호, pp.35-41, 2003.
- [24] 김정희, "스트레스 평가와 대처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7권, 제1호, pp.44-69, 1995.
- [25] 박지원,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 [26] 문재영, 대학생의 기업체 예비학습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가 취업전략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27] R. W. Baker and B. Siryk, SACQ: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manual,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1989.
- [28] 이운정, 지방출신 서울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계획,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29] 이경주, 김미영, "남자간호사의 성역할 갈등, 절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제26권, 제1호, pp.46-57, 2014.
- [30]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 [31] J. McMillian, S. A. Morgan, and P. Ament, "Acceptance of male registered nurses by female registered nurs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Vol.38, No.1, pp.100-106, 2006.
- [32] S. H. Chen, C. M. Fu, R. H. Li, J. H. Lou, and H. Y. Yu,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professional empowerment, and nursing career development of male nurses: A cross-sectional analysis,"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Vol.34, No.7, pp.862-882, 2012.
- [33] 김건희,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 유머감각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3호, pp.301-313, 2014.
- [34] 김은아, 장금성,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예측모형 구축",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8권, 제2호, pp.312-322, 2012.
- [35] 정효주, 정향인, "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제21권, 제3호, pp.188-196, 2012.
- [36] 서미, 최보영, 조한익, "생활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7권, 제2호, pp.271-288, 2006.
- [37] 박진아, 이은경,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제17권, 제3호, pp.267-276, 2011.
- [38] 박정희, 김홍석,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11호, pp.125-144, 2009.
- [39] 최바울, 대학생의 적응유연성신념이 대학생활의 적응과 스트레스 조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 석사학위논문, 2007.

[40] 양윤경, 한금선, 배문혜, 양승희,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학업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연구, 제22권, 제1호, pp.23-33, 2014.

[41] 박복남, 박중선, 이정란,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제34권, 제2호, pp.153-164, 2009.

저 자 소 개

전 해 옥(Hae Ok Jeon)

정회원



- 200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0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만성질환, 교육 콘텐츠개발, 인터넷 기반 코칭프로그램

염 은 이(Eun Yi Yeom)

정회원



- 199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6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3년 9월 ~ 현재 : 청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만성질환, 시뮬레이션 교육